행내한
Weekly IBK 북한경제 브리프
(2호) 2018-08-14
북한경제연구센터

한평생의 기다림, 3일간의 만남

※ '18.4월, 판문점 선언에서 8.15기념 이산가족상봉 합의, 8.20~26일간 금강산에서 진행

□ (진행 과정) 거미줄 쳐진 금강산면회소, 따뜻한 불빛 밝힌다

○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: '51년 1.4후퇴 당시 처자식을 두고 월남했던 아버지가 '64년 도쿄 올림픽에 북한 육상 대표선수로 참가한 딸을 극적으로 만났다가 10분도 채 안 돼 다시 이별한 사연

※ 본 사연은 '신금단 부녀상봉'으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'눈물의 신금단'(노래 : 황금심)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져 유행하기도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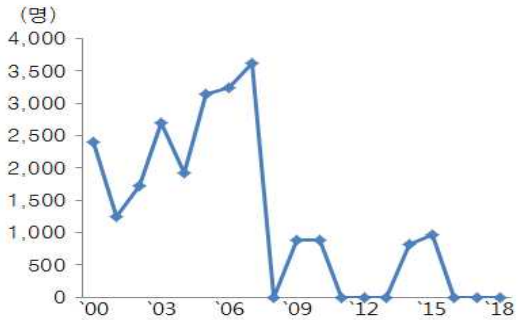
○ '00년 6.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시작

- 정부 주도의 상봉은 지난 **17년간 20차례** 진행됐으며 **총 2만 3,678명의 이산가족이 상봉**
- '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체된 이래 미미한 수준으로 진행

< 심금을 울린 신금단 부녀상봉 >



< 이산가족상봉 추이 >



주 : 민간을 제외한 정부차원의 이산가족상봉., 화상상봉 포함., '18년은 7월 31일 기준
자료 : 인터넷 포탈,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

□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, 따뜻한 밥 한공기 같이 먹을 수 있을까

○ 21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각 2박 3일씩 2회에 걸쳐 진행

- 1차 상봉(8.20~22) :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가족과 상봉(북측 주관)
- 2차 상봉(8.24~26) :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(남측 주관)

○ 과거사례로 볼 때 이산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12시간(단체상봉, 개별상봉, 식사 2~3끼 포함) 정도

- 각 상봉은 2시간가량 진행되며 숙소는 분리되어 있음

○ 北 **정부의 엄격한 통제**로 인해 난감한 상황 벌어지기도

- 의류, 영양제, 상비약 등의 실용품을 자유롭게 준비하는 남측과 달리 북에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물을 준비함

※ 북측에 있는 오빠가 한 아름 선물을 가져온 동생에게 "너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이게 뭐냐!" 라고 호통친 웃지 못할 사연 (출처 : 연합뉴스)

□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... 조급한 이산가족

○ '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'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13만 2,603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7만 5,741명, 생존자는 5만 6,862명으로 **사망자가 생존자 수를 넘어섬**('18.7.31. 기준)

- 생존자 중 **80세 이상**은 3만 5,571명으로 전체 생존인원의 **62.6%** 차지

○ 또한 실시간으로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**전산망 제도 미비**로 주민 통계가 **정확하지 못함**

○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로부터 **불이익을 받을까 염려**되어 **상봉 신청을 꺼리는 경우**도 있다고 함

□ 남은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까

○ 9월 예정된 평양 **남북정상회담을 계기**로 **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** 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

○ **화상 상봉 확대, 북한 전산망 제도 정비,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 추진**

○ 상봉 이후에도 **서신교환, 생사확인** 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원

(작성자 : 북한경제연구센터 대리 이희진 ibk26625@ibk.co.kr / ☎02-729-7609)